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2022.3.14

나스닥, FOMC를 앞두고 우크라이나 영향에 주목하며 2% 하락

서상영 sangyoung.seo@miraeeasset.com

미 증시 동향

- 미 증시는 푸틴이 우크라이나와의 회담이 긍정적이었다고 언급하자 상승 출발 했으나, 미국 소비심리지수 위축에 따른 소비 둔화 우려로 하락 전환. 이런 가운데 미국의 대 러시아 추가 제재 발표로 낙폭이 확대되며 마감. 특히 서방국가와 러시아간의 제재 발표 영향을 주되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전기차 등이 하락 주도. 한편, 높은 인플레이가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연준의 공격적인 대응 가능성이 부각된 점도 하락 요인(다우 -0.69%, 나스닥 -2.18%, S&P500 -1.30%, 러셀2000 -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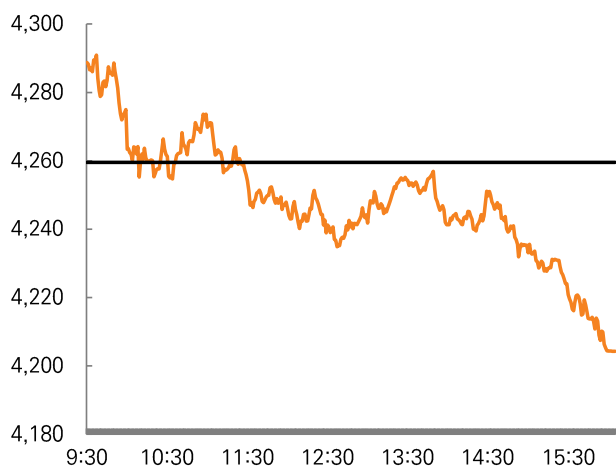
특이 종목

- 테슬라(-5.12%)는 반도체 칩 부족, 니켈 가격 급등에 따른 비용 증가, 리비안(-7.56%) 실적 부진, 자체 배터리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소식 등이 전해지자 하락. 중국 기업들의 회계 문제가 불거진 여파로 니오(-9.57%), 샤오펑(-12.12%), 리오토(-14.70%) 등의 낙폭이 더 큼. 알리바바(-6.68%), JD(-8.63%), 바이두(-12.02%) 등 중국 기업들은 여전히 미국의 회계 문제로 상장 폐지 가능성이 높아지자 하락 지속. 마이크론(-3.83%)은 우크라이나 문제로 반도체 칩 생산 지연 우려로 하락 지속

한국 증시 전망

- MSCI 한국 지수 ETF는 1.50% MSCI 신흥 지수 ETF는 2.09%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37.90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5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61% 하락. KOSPI는 0.5% 내외 하락 출발 예상.
- 미 증시가 여전히 불안한 우크라이나 이슈로 장 후반 매물이 출회되며 낙폭을 확대하며 마감한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08% 하락한 점, 전기차 업종의 급락, 연준의 금리인상 이슈에 주목하며 단기 국채 금리 및 달러 강세도 투자심리 위축 요인. 특히 미국 소비 심리지수가 높은 인플레이로 인해 201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소비 둔화 우려가 높아진 점도 달러/원 환율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외국인 수급에 부정적.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0.5% 내외 하락 출발 후 외국인 수급 불안 등으로 변동성 확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661.28	-0.71	상해종합	3,309.75	+0.41
KOSDAQ	891.71	+0.30	홍콩항셍	20,553.79	-1.61
DOW	32,944.19	-0.69	베트남	1,466.54	-0.85
NASDAQ	12,843.81	-2.18	유로스톡스 50	3,686.78	+0.97
S&P 500	4,204.31	-1.30	영국	7,155.64	+0.80
캐나다	21,461.83	-0.56	독일	13,628.11	+1.38
일본	25,162.78	-2.05	프랑스	6,260.25	+0.85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글로벌 투자 파트너 -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변화 요인

우크라이나 이슈와 연준의 행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속적인 회담과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터키에서 있었던 장관급 회담에 대해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 특히 이후에도 많은 서방 국가들과 회담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점도 위험자산 선호심리를 높임. 그렇지만, 여전히 교착 상태를 이어가며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짐. 실제 주말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솔츠 독일 총리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이 이어졌지만,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한 마크롱과 솔츠의 언급에도 푸틴은 전쟁 지속 의지를 표명.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등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협상을 촉구하고 있어 구체적인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는 기대도 여전히 관련 이슈 향방이 조만간 결정 될 듯

그렇기 때문에 외환시장과 상품 선물 시장의 움직임은 서방국가의 대 러시아 추가 제재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엔화와 스위스 프랑은 달러 대비 약세폭이 컸으며 러시아 루블화는 보험권 등락을 보임. 물론, 이번 사태로 유로존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며 유로화가 약세를 보인 점, 밀과 옥수수, 국제유가와 천연가스의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 불안 심리는 여전히나 변동폭은 제한

이런 가운데 시장 참여자들은 FOMC를 앞두고 연준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미 국채 금리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 특히 장기물보다 단기물의 상승세가 확대되며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 소화 과정을 보이는 등 연준의 통화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추정

국제유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과 함께 이란 합 합의 복원 협상의 중단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봄밀과 옥수수 파종 면적 급감에 따른 식품가격 상승, 그리고 비철금속 강세에 따른 기업들의 비용 전가 소식 등은 결국 높은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를 높임. 이는 연준의 매파적인 행보를 자극하고 있어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 출회 확산

결국 시장은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 촉발된 상품가격 상승이 높은 인플레이션 장기화 가능성을 높였고, 이는 연준의 공격적인 통화정책 가능성을 자극하자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되는 등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 한 것으로 추정. 그렇지만, 연준이 매우 공격적인 통화정책을 펼치기에는 스테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연준은 금리인상은 단행하겠지만, 시장 우려와 달리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 이에 힘입어 주식시장 등 위험자산은 FOMC 이후 반등을 보일 것으로 전망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전기차, 반도체, 소프트웨어 업종 부진

테슬라(-5.12%)는 반도체 칩 부족, 니켈 가격 급등에 따른 비용 증가, 리비안(-7.56%) 실적 부진, 자체 배터리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소식 등이 전해지자 하락. 리비안은 물론 루시드(-5.33%)도 동반 하락. 여기에 중국 기업들의 회계 문제가 불거진 여파로 니오(-9.57%), 샤오팡(-12.12%), 리오토(-14.70%) 등 중국 전기차 업종의 낙폭이 더 컸음. 알리바바(-6.68%), 진둥닷컴(-8.63%), 바이두(-12.02%) 등 중국 기업들은 여전히 미국의 회계 문제로 상장 폐지 가능성이 높아지자 하락 지속. 마이크론(-3.83%)은 우크라이나 문제로 반도체 칩 생산 지연 우려로 하락. 엔비디아(-2.46%), AMD(-2.04%)도 부진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08% 하락

도큐사인(-20.10%)은 경제 정상화 과정 속 향후 실적 둔화를 언급하자 급락. 이 여파로 줌 비디오(-5.04%), 넷플릭스(-4.61%)는 물론 서비스나우(-4.02%), 어도비(-5.14%), 인튜이트(-2.88%) 등 소프트웨어 업종 투자 심리 위축 요인. 메타플랫폼(-3.89%)은 러시아인에 대한 증오심 표현을 허용한다고 발표 후 하락 지속. 한편, 영국과 EU가 온라인 광고에 대해 알파벳(-1.66%)의 구글과 페이스북에 대한 반독점 조사 소식도 하락 요인. 반면, 우버(+1.15%)는 도이체방크가 매수 등급으로 커버리지를 시작하자 상승. 오라클(+1.53%)은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매출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및 라이선스 매출이 증가세를 기록하자 상승. SG가 투자여건을 상향 조정한 점도 영향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1.57	대형 가치주 ETF (IVE)	-0.78
에너지섹터 ETF (OIH)	-1.48	중형 가치주 ETF (IWS)	-0.92
소매업체 ETF (XLY)	-1.92	소형 가치주 ETF (IWN)	-0.98
온라인소매 ETF (EBIZ)	-4.36	대형 성장주 ETF (VUG)	-2.03
금융섹터 ETF (XLF)	-0.71	중형 성장주 ETF (IWP)	-2.58
기술섹터 ETF (XLK)	-1.76	소형 성장주 ETF (IWO)	-2.42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4.56	배당주 ETF (DVY)	-0.35
클라우드 ETF (CLOU)	-3.03	신흥국 고배당 ETF (DEM)	-0.87
미국 리츠 ETF (VNQ)	-0.79	신흥국 저변동성 ETF (EEMV)	-1.08
주택건설업체 ETF (XHB)	-0.99	미국 국채 ETF (IEF)	-0.03
바이오섹터 ETF (IBB)	-1.91	하이일드 ETF (JNK)	-0.79
헬스케어 ETF (XLV)	-0.75	물가연동채 ETF (TIP)	+0.71
곡물 ETF (DBA)	+0.32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04
반도체 ETF (SMH)	-2.25	모멘텀 ETF (MTUM)	-1.97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유틸리티	355.70	-0.37	-0.75	+4.61
금융	603.92	-0.72	-2.22	-10.67
소재	512.53	-0.74	-1.58	-4.40
헬스케어	1,499.91	-0.79	-2.77	-2.53
산업재	826.00	-0.80	-2.46	-3.16
에너지	580.55	-0.85	+1.88	+11.62
부동산	286.69	-0.93	-1.80	-0.62
필수소비재	744.60	-1.15	-5.78	-5.40
경기소비재	1,315.58	-1.79	-2.59	-10.19
IT	2,524.09	-1.80	-3.81	-9.91
커뮤니케이션	219.59	-1.88	-3.14	-8.74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FOMC를 기다리며 변동성 확대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는 1.50% MSCI 신흥 지수 ETF는 2.09%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237.90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5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61% 하락. KOSPI는 0.5% 내외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지난 금요일 한국 증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회담 기대가 약화되며 하락 출발. 특히 달러/원 환율이 1,230원대를 기록하는 등 원화 약세가 지속되자 외국인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점도 하락 요인. 더 나아가 LG에너지솔루션의 KOSPI200 포함에 따른 수급적인 요인도 지수에 부정적. 다만, 이런 영향이 제한적인 KOSDAQ의 경우 강세를 보인 점도 특징. 결국 한국 증시는 수급적인 요인이 지수 방향을 결정한 것으로 추정.

이런 가운데 미 증시가 여전히 불안한 우크라이나 이슈로 장 후반 매물이 출회되며 낙폭을 확대하며 마감한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네온 등의 수급 불안으로 마이크론(-3.83%)의 하락세가 지속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08% 하락한 점도 부담. 물론 재고는 많아 당장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장기화될 경우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런 가운데 전기차 업종의 급락, 연준의 금리 인상 이슈에 주목하며 단기 국채 금리 및 달러 강세도 투자심리 위축 요인.

한편, TED Spread, US Libor-OIS spread 등 주요 리스크 팩터 등이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격하게 상승하는 등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점도 부담. 물론 이러한 수치는 결국 우크라이나 사태가 완화될 경우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는 되돌아 가기에는 시간이 필요. 이 여파로 변동성 확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특히 미국 소비심리지수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201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소비 둔화 우려가 높아진 점도 달러/원 환율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외국인 수급에 부정적.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0.5% 내외 하락 출발 후 외국인 수급 불안 등으로 변동성 확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낮은 소비 심리

미국 3월 소비심리지수는 지난달 발표(62.8)나 예상(61.7)을 하회한 59.7로 발표돼 2011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급격하게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추정. 현재 상황지수는 68.2에서 67.8로, 기대지수도 59.4에서 54.4로 위축. 1년 인플레이션 전망은 지난 달 4.9%에서 5.4%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는 1981년 이후 최고 수준. 다만 5년 인플레이션은 3.0%로 유지.

”
상품 및
FX시장 동향
”

국제유가, 이란 핵 합의 복원 협상 중단으로 상승

국제유가는 미국의 대 러시아 추가 제재 발표 등으로 마찰이 더욱 확대된 데 이어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확대. 공급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란 문제가 재 부각되자 공급 감소 우려가 더욱 확산된 점이 부담. 한편, 베이커휴즈가 발표하는 미국 원유 시추공 수가 지난주에 8개 늘어난 527개로 발표되어 미국의 생산 증가 기대가 높아 상승폭을 제한하기도 했으나 상승을 막지는 못함

달러화는 소비심리지수 둔화 등에도 불구하고 유로화 약세 영향으로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 특히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대 러시아 제재와 러시아의 대 서방 국가 제재는 결국 유로존 경기 둔화 우려를 높인다는 점에서 유로화의 약세가 확산. 이는 미국과 유로존 경기 흐름의 차이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

국채금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로 단기물의 상승폭이 확대. 더불어 미국 소비 심리지수가 둔화되었으나 1년 인플레이션 상향 조정은 결국 연준의 금리인상 확대 이슈도 단기물 상승 요인. 다만, 장기물의 경우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진 여파로 제한적인 모습

금은 달러 강세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협상 진전 기대 심리가 여전하자 하락. 구리 및 비철금속은 우크라이나 우려가 일부 완화되는 과정 속 혼조 마감. 곡물은 전일 급락했던 밀은 재차 상승했는데 파종면적이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추정. 대두는 차익 매물 출회되며 하락.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04%, 철근은 0.53% 하락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109.33	+3.12	-5.49	Dollar Index	99.124	+0.63	+0.48
브렌트유	112.67	+3.05	-4.61	EUR/USD	1.0912	-0.67	-0.15
천연가스	4.73	+2.03	-5.80	USD/JPY	117.29	+0.99	+2.15
금	1,985.00	-0.77	+0.94	GBP/USD	1.3037	-0.37	-1.46
은	26.16	-0.37	+1.44	USD/CHF	0.9342	+0.47	+1.91
알루미늄	3,483.00	+1.62	-9.51	AUD/USD	0.7293	-0.88	-1.04
전기동	10,183.50	+0.66	-4.60	USD/CAD	1.2744	-0.20	+0.10
아연	3,815.00	-1.24	-5.83	USD/RUB	134.2102	+0.01	+9.19
옥수수	762.50	+0.89	+1.09	USD/BRL	5.0750	+1.12	+0.20
밀	1,106.50	+1.79	-8.48	USD/CNH	6.3580	+0.49	+0.52
대두	1,676.00	-0.61	+0.93	USD/KRW	1,232.00	+0.30	+2.27
커피	221.95	-1.00	-1.03	USD/KRW NDF1M	1,237.90	+0.69	+1.64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1.992	+0.53	+26.10	스페인	1.236	-2.90	+27.00
한국	2.695	-2.60	+1.80	포르투갈	1.101	-2.80	+27.00
일본	0.185	-0.90	+2.20	그리스	2.567	+2.70	+21.90
독일	0.249	-2.50	+31.80	이탈리아	1.848	-5.20	+31.3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